

결 정

2018 - 1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남매일 발행인 윤 규 현
2. 충청매일 발행인 변 보 석
3. 忠淸日報 발행인 이 규 택

주 문

경남매일 2018년 1월 4일자 1면 「거제 조선산업 희망 뱃고동 올렸다」 기사의 관련 사진, 충청매일 1월 18일자 1면 「文 대통령,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 기사의 관련 사진, 忠淸日報 1월 25일자 1면 「정현 ‘테니스의 역사’ 새로 썼다」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경남매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LNG(액화천연가스) 쇄빙선을 시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1월 4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가 1월 3일자 오후 1시 16분 송고

(충청매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경기훈련관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인 남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1월 17일자 오후 1시 17분 송고한 사진

(忠清日報)=



정현이 24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전에서 미국 테니스 선수그린을 꺾고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전에 진출한 뒤 기뻐하고 있다.

1월 25일자 1면 사진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진을 받아 국내 통신사 뉴스1이 전송한 사진.

경남매일은 연합뉴스가 1월 3일 13시16분에 전송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둘러보는 문 대통령」 제목의 사진을, 충청매일은 연합뉴스가 1월 17일 13시 17분에 전송한 「문 대통령, 한국 아이스하키 파이팅!」 제목의 사진을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1면에 게재했다. 忠淸日報는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진을 받아 국내 통신사 뉴스1이 전송한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	원	정	송	호	
		장	명	국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장 인 철
		김	규	식	김 규 식
		강		희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박 미 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